

3. 사회문화

- 아프간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과거부터 페르시아, 그리스, 불교, 힌두교 및 이슬람 문화가 전파, 교차되어 관련 문화적 유물이 풍부하였음. 그러나, 그동안 전란으로 현재 일부분의 유물만이 남아 있는 상태임.
- 특히, 탈레반 정권시절은 아프간내 남아 있는 문화 유산의 파괴가 가장 심하던 시기임.
- 카불 시내 아프간 국립 박물관이 소장했던 약 10만점의 불교, 인도-그리스 문화 유적중 약 2/3가 소실되었음.
-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었으나 이슬람 근본주의 색채가 아직도 일반인 생활에 남아있음.
 - 여성 교육, 문화 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1상당수 여성들은 거리에서 부르카를 착용
- 23년간의 내전으로 인한 각종 사회 기반시설의 붕괴, 생활고 등으로 일반인들의 문화생활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.
 - 아프간 전체 인구의 약 6%만이 전기를 보급 받기 때문에 문화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음.

□ 민족 구성

- 아프가니스탄은 다민족 국가로, 2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음
- 주요 민족 구성(2011년)

- 파슈툰인 42%
- 타지크인 27%
- 하자라인 9%
- 우즈베크인 9%
- 투르크멘인 및 기타

□ 언어

○ 주요 언어 구성(2011년)

- 파슈툰어 35%
- 다리어(공식어) 50%
- 터키어 방언 15%

○ 민족별 사용언어는 다음과 같음

- 파슈툰인 파슈툰어,
- 타지크인 다리어, 타지크어
- 하자라인 하자라기어
- 우즈베크인 우즈베크어, 터키어 방언

□ 종교

○ 이슬람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임. 이슬람교 내에서도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는 달리 수니파가 다수임

- 수니파 80%
- 시아파 19%

- 소수이긴 하나 힌두교, 기독교, 시크교, 불교도 존재(탈리반 정권 당시 불교 사원이 파괴되기도 하였음)

□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특징

- 전통적인 아프간 사회는 험악한 산맥과 사막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구조로서, 각 종족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며 집단주의 보다는 개인주의를 강조함.
- ※ 아프간의 개인주의는 단순히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가족과 부족을 강조하는 특성을 띄고 있음.
- 파슈툰족은 아프간의 지배적인 종족일 뿐만 아니라 약 200년 동안이 지역을 통치해 왔음. 파슈툰족의 문화적인 특성은 전통적으로 용기, 활력 및 호전성을 강조해 왔으며, 자신들의 문화적 유사성 및 동질성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왔음.
 - 강력한 부계사회와 대가족제를 유지하며, 부족의 혈통을 종교나 사상적 요소보다 중시함. 따라서 종족 수호를 위한 충성심, 협동심 및 개인적 봉사를 높이 평가함.
 - 파슈툰족 사회에서 개인은 파쉬툰왈리(pashtunwali)라고 불리는 기사도규범(일종의 불문법)을 엄격히 추종하며, 이 불문법의 주요골자는 ①바달(Badal, 복수), ② 멜마스티아(Melmastia, 환대) ③나나와티(nanawati, 보호)로서, 이중에서 바달은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바, 직계 가족의 복수는 그 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됨.

- 파슈툰 사회의 유일한 통치기구인 지르가(Jirga), 즉 부족장 회의이며, 지르가는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오면서 관습법으로 제도화 되었고, 전쟁이나 평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의 결정은 모두 이 지르가에서 논의됨.

□ 한국 문화 유입 정도

- 한국의 태권도는 아프가니스탄 내 수도 카불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명의 수련생을 지닌 인기 스포츠임.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프간 여성이 태권도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기도 하였음
- 한편, 한국인 23인 피랍 당시, 아프간 주요 TV 및 라디오에 '동방에서 온 친구'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화, 역사, 한-이슬람 문화권 교류 및 협력, 한국 무슬림 활동상 등을 소개하는 특집을 여러 차례 방영하기도 하였음
- 또한 19개 동맹국군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기지의 동맹군 사이에서는 태권도 및 한국 식당, 한국 군 관련 영화 등이 높은 인기를 얻은 바 있음
- 2004년 ~ 2007년 사이에는 600만 달러 규모의 공무원 교육 및 교육원, 수력 발전소, 병원, IT센터, 훈련원, 초등학교 및 보건소 설립을 지원
- 그 외에 2007년 ~ 2008년에는 우리 드라마인 '대장금'과 '가을동화'가 아프가니스탄 방송국을 통해 방영, 인기를 끌었음

